

## 강요배 개인전 1부

# 상(象)을 찾아서



수직·수평면 풍경,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161.7cm

전시명: 상(象)을 찾아서

일 시: 2018년 5월 25일(금) – 6월 17일(일)

장 소: 학고재 전관

출품작: 회화 30여 점

담 당

김한들 hkim@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80525-20180617 강요배 '상을 찾아서']

## 1. 전시 개요

학고재에서 강요배 개인전을 연다. 1부 전과 2부 전으로 나누어서 여는 대형 전시다. 1부 전은 '상(象)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학고재 전관에서 개최한다. 2015년 이중섭미술상 수상 이후 제주도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개인전에 이어 갤러리에서는 처음 여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요배 작품 세계의 주요 주제인 제주 풍경과 함께 작업실 주변에 찾아드는 자연의 벗들을 작가 특유의 감성으로 포착해낸 작업을 선보인다. 화실을 오가는 고양이, 왜가리, 한조 등과 뜰에 피고 지는 꽃과 나무 등을 기록한 작품이다. 모두 지난 2년여간 작업한 신작이다. 삶 가까이에서 만나는 소소하고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작가의 따뜻한 애정과 정감을 쏟아부은 그림들을 만나볼 기회다.

'상(象)을 찾아서'에서 상은 '코끼리 상'이다. '코끼리 상'은 형상, 인상, 추상, 표상 등의 미술 용어에서 '이미지'를 뜻하는 글자다. 옛날 보기 드문 동물이었던 코끼리를 묘사하기 위해 말 대신 그림을 그려 설명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어원에 기초하여 물건의 모양을 본떠 그린 형태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추상적 이미지 자체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강요배는 작품의 완성을 위해 인상, 심상, 그리고 추상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차례로 밟는다. 인상에 남아 마음의 여과를 거친 장면은 항상 우리 삶의 정수와 맞닿아 있는 순간이기에 이번 전시는 강요배가 '삶의 정수를 찾아서'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전시다.

이 전시를 마치고 이어서 열리는 2부 전은 '메멘토, 동백'이라는 주제로 6월 22일부터 7월 15

일까지 열린다.<sup>1</sup> '동백꽃 지다'로 널리 알려진 강요배의 역사화를 한자리에 모으는 전에 없던 전시 구성이다. 1989년부터 2017년까지의 작업을 '동백꽃 지다'와 '동백 이후'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 아래 선보인다. 이번 두 전시를 통해 작가 작품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2. 작가 소개

강요배는 1952년 제주시 삼양동에서 태어났다. 강요배의 이름과 관련해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 강요배의 아버지는 1948년 봄, 제주 4·3 항쟁을 몸소 겪었다. 육지에서 출동한 토벌대는 빨갱이라는 명목 아래 사람들을 색출했다. 색출 당한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른다는 이유로 함께 처형당했다. 순이, 철이와 같이 당시 널리 쓰인 이름의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어 나갔다. 강요배의 아버지는 그 참담함을 지켜보며 자신의 자식 이름은 절대 남들이 같이 지을 수 없는 이름 글자를 찾아서 堯(요나라 요), 培(북돋을 배)를 써서 강요배라고 지었다. 강요배는 태어날 때부터 제주라는 땅이 품고 있는 역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태어났다.

강요배는 어린 시절 마을 도서관에서 빌려본 그림책에서 화가에 대해 동경을 느껴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1982년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6년 제주시 관덕정 인근의 대호다방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이때 쓴 작가노트에서 "삶 자체와 공존의 울림"을 최상의 가치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1977년부터 '관점' 미술 동인으로 활동하며 전시를 했다. '관점' 동인전에 아홉 차례 참여하며 작품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강요배가 현실과 시대, 그리고 역사와 미술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현실과 발언'의 동인이 되면서부터다. '도시와 시각'(1981), '행복의 모습'(1982), '6.25'(1984) 등의 '현실과 발언' 동인전과 '짧은 의식'(1982), '시대정신'(1983) 등의 전시들에 참여했다. 이 전시들에서 <인멸도>(1981), <탐라도>(1982), <장례명상도>(1983), <군세어라 금순아>(1984) 등의 시대의 모습을 포착한 작품을 발표하여 시대정신과 그것의 미학적 실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강요배는 창문여고에서 미술 교사를 했다. 이후 1982년부터는 금성사 계열의 회사에서 삽화를 그리기 시작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1988년에 일을 그만두었다. 곧, 그는 한겨레 신문에 소설가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 삽화를 그리게 되었다. '바람 타는 섬'은 일제 강점기에 제주 해녀들의 생존권 투쟁이 항일운동으로 발전한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삽화를 그리는 1년 동안 제주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제주 4·3 항쟁에 대한 강렬한 충격이 일어났다. 강요배는 그때의 충격과 따라온 생각을 2008년에 쓴 작가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그때에 이르러서야 나는 '4·3'을 생각했다. 알 수 없는 공포의 장막, 저 너머에 있는. 내 고향 제주. 그 섬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폭압적 살인 기제의 작

<sup>1</sup> 6월 15일 개별 보도자료 배포 예정

동, 매물 협박 감시에 의한 인멸과 봉인, 살아남은 사람들의 울분과 눈물, 그리고 침묵.”

강요배, 「시간 속에서」, 『동백꽃 지다』 (보리, 2008), 4쪽

강요배는 1989년 삽화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제주 4·3 항쟁 공부에 매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 항쟁을 담은 작품 50여 점을 완성했다. 1992년 '강요배 역사그림-제주민중항쟁사'를 학교재에서 선보였다. 이 전시는 4·3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며 역사 주제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일어난 잔인한 학살은 일반인들에게도 충격을 주었고 제주를 다시 인식하게 하였다.

강요배는 슬픔과 분노로 얼룩진 4·3의 역사화를 그리고 전시회를 마친 후 심신이 지쳐있었다. 서울 생활에서 더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한 그는 고향 제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도를 들고 제주의 자연을 찾아나 섰다. 제주의 역사를 알고 나니 자연 풍경이 조형적 형식이 아닌 감정이 담긴 대상으로 다가왔다. 제주 자연의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강요배는 이후 제주의 자연과 역사를 담은 그림을 '4·3 50주년 기념-동백꽃 지다' 순회전(1998), '땅에 스민 시간'(2003), '풍화'(2011) 등의 전시를 통해 선보였다. 2015년 이중섭미술상을 받아 한국 동시대 미술사의 주요 작가로 인정받았다. 이후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어 초등학교 시절 그림부터 2015년까지의 작품을 통해 50여 년 화업을 되돌아봤다. 이중섭미술관에서 또한 대형 개인전을 열었다. 학교재에서는 이번 전시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최근의 작품 경향을 보여주는 신작(1부)을 선보이는 동시에 역사화(2부)를 총망라해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이 두 전시를 통해 지금까지의 작품 세계를 정리하며 되새겨보고 앞으로 나아갈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 3. 작품 세계

강요배가 이루어 낸 작품 세계는 끊임없는 독서와 사색을 통해 만들어진 노력의 산물이다. 역사, 철학서부터 지리서까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독서량과 책에서 마주치는 논점에 대한 숙고는 강요배에게 미술 지식 외에도 땅의 역사와 자연의 형질까지 통찰하는 눈을 갖게 했다. 제주 4·3 항쟁 연작을 완성하게 한 힘이다. 자신만의 특유한 회화적 특성을 창출하여 회화가 추구하는 본질을 꿰뚫었다.

강요배의 화론은 내면에 들어온 심상(心象)을 추상(抽象)으로 펼쳐놓는 것이다. 그는 매일 집에서 작업실을 오가며, 외출하고 여행하며 제주의 풍경을 본다. 같은 것을 반복하여 경험하는 것 같지만 날씨와 시간에 따라 다른 장면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중 어떤 장면은 작가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어 마음에 남는다. 작가는 이 마음에 남은 장면을 잘 기억하고 여과하고 담아두었다가 작업실에서 작품으로 펼친다. 이와 같은 경험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사실주의적이기보다 서양의 인상주의처럼 추상적인 형태를 지닌다. 강요배의 작품 세계를 독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와 같은 작업과정에서 주역의 철학을 체득하여 천지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강요배의 그림을 보면 제주 자연의 한 장면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귀 기울여보라 제주에

서는/ 바람도 파도 소리를 낼 줄 안다'는 정희성 시인의 시구처럼 모든 그림에서 제주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의 그림에는 안온한 날은 부드럽게, 폭풍이 치는 날은 거친 모습이 화면에 담겨 그때의 느낌과 분위기가 사실같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순간순간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 작품에 현실감이 담겨있는 동시에 축적된 경험과 감정이 용해 되어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강요배의 능숙하면서도 뛰어난 붓 사용 능력도 한몫한다. 그는 '제주의 자연'(1994, 학교재) 전시를 준비하면서부터 일반적인 붓과 함께 빗자루, 말린 칩뿌리, 서너 겹 접은 종이 붓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향 제주에 내려와 제주의 자연을 그리면서 투박하고 성근 제주의 땅과 돌과 풀, 나무에 어울리는 도구를 개발한 것이다. 이러한 재료들은 손이 의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지 않을 법도 한데 강요배의 손 안에서는 통제와 조절이 수월히 이루어진다. 이십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반복하며 수련한 작가의 손이기에 가능하다.

전시 대표작



항산(恒山), 2017, 캔버스에 아크릴릭, 197×333.5cm

**항산(2017)**은 한라산 정상의 설경을 500호에 담은 대작이다. 작업실 마당 동쪽에 솟은 모습이다. 눈보라가 휘날린 다음 날 맑게 갠 산의 모습을 그렸다. 반은 푸른색 그늘의 설산이고 반은 산과 구름 사이의 하늘이다. 이 작품은 산을 뒤덮은 눈에 반사하는 빛의 찬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준다. 자연의 신비로움이 극대화하는 순간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화면에 가득 찬 붓질 선묘에서 작가의 숙련된 노력이 느껴진다.

강요배의 화론은, 내면에 들어온 심상(心象)과 주역으로 해득하려는 괘상(卦象), 내 생각을 남과 공감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추상(抽象)을 추구한다. 서양미술에서 말하는 추상과 다른 성격을 가진다. 숙고의 시간을 통해 완성된 이미지는 특유의 차분함과 응축된 힘이 있다.



**치솟음(2017)**은 파도가 바위를 치고 올라가는 장면을 담은 그림이다. 작가는 이런 장면은 대부분 가슴속이 갑갑할 때 깊이 뇌리에 박힌다고 고백한다. 이 작품의 화면 사방으로 튀는 물방울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다. 변화무쌍하게 요동치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인간의 삶을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보인다.

강요배는 소리를 자기 작품세계의 주요 요소로 꼽는다. 그에 의하면 소리라는 것은 파도 소리,

치솟음, 2017, 캔버스에 아크릴릭, 259×194cm



물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것도 있고 화면 위에서 붓이 움직이며 내는 소리도 있다.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거친 질감과 움직이는 속도가 있어야 한다. 질감은 오랜 시간에 의해 결이 만들어진다.

천고(天高), 2017, 캔버스에 아크릴릭, 227×181.7cm



**천고(2017)**는 높은 가을 하늘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가을 하늘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곳에는 기류가 거의 없거나 적어서 구름이 아주 얇게 흘러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을 포착하여 그린 작품이다. 새파란 하늘 배경에 얇게 흐르듯 펼쳐진 흰 구름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작품 앞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을날의 높은 하늘이 손에 잡힐 것만 같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시도이다. 단순함 안에 핵심을 담고자 했다.

1990년대에 고향 제주도에 내려와서부터 말린 칩뿌리, 구긴 종이, 빗자루 등을 붓과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흰 구름 표현을 위해 빗자루를 사용했다. 빗의 끝이 캔버스 위에 몇 번 스치지 않았는데도 약한 바람에 펼쳐진 구름 모양이 자연스럽다. 작가의 경지에 오른 재료 사용이 감탄을 자아낸다.

수직·수평면 풍경,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161.7cm

**수직·수평면 풍경(2018)**은 작가의 작업실 앞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제주에 전에 없던 양의 눈이 쏟아져 내렸던 지난 겨울의 설경을 포착한 그림이다. 눈 쌓인 수돗가의 모습과 그곳에 심은 먼 나무에 달린 빨간 열매의 모습이 정겹고 사랑스럽다. 구사한 자연의 색에서 코끝이 시린 느낌과 풀내음이 동시에 묻어난다.

강요배는 최근 작업실 '귀덕화사(歸德畵舍)'의 주변 풍경을 즐겨 그린다. 마당에 핀 수선화, 홍매 등과 화실을 찾아오는 고양이, 왜가리 등을 캔버스 위에 담는다. 애정을 담아 표현해낸 귀덕화사의 모습과 찾아오는 친구를 그린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작가의 따듯한 성정이 느껴진다. 작가가 심중에 지니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작은 생명과 소소한 일상을 사랑하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지 않는 길양이(2018)**는 한동안 귀덕화사를 찾아오던 길고양이를 그린 작품이다. 이 길고양이



오지 않는 길양이,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먹, 90.5×72.5cm

는 작가를 따라다니며 정이 들어 <봄잠>(2017)이라는 작품에 등장하기도 했다. 어느 날 우락부락하게 생긴 고양이가 귀덕화사에 등장하며 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하얀 배경에 검은색으로 그려낸 고양이의 실루엣이 또렷하게 드러나 눈길을 잡는다.

강요배는 기본적으로 캔버스, 아크릴 물감 등 서양화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하지만 재료와 상관 없이 단색 배경에 일필휘지로 그려낸 그림에서는 동양화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1994년에 그린 <세한송>을 기점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붓의 흔적을 강조한 것으로 강요배식 필치의 백미를 맛볼 수 있는 작품이다.

## 4. 작가의 글

### 사물을 보는 법

강요배

나는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처음에 분위기를 파악한다. 다음에는 유난히 눈에 띈 것을 관찰한다. 그리고는 관찰체험을 심적으로 여과하면서 그것을 의미 있는 무엇으로 지니고자 한다.

분위기는 물체나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큰 느낌이다. 그것은 시야나 온 몸에 단번에 다가오는 즉각적인 감각이지만, 경험이나 사전지식 그리고 막연한 예상에 뿌리내린 감각이기도 하다. 즉 이해와 감성의 복합작용이다.

우선 조도(照度)를 느낀다. 어둠과 어스름으로부터 흐리고 맑고 눈부심까지. 동시에 온도를 느끼고 소리를 듣고 질감을 느낀다.

더불어 어떤 흐름을 감지한다. 정지와 운동이다. 고요하거나 굳건한 것, 빠르거나 느리게, 끊어지거나 이어지면서, 급박하거나 유유하게 움직이는 것들이다. 이들을 조(調)와 율(律)이라 말할 수 있겠다.

예상은 크게 빛나가기도 하고, 오인과 무감각도 혼한 일이다.



나는 상황 속에 있거나, 상황의 가장자리에 있거나, 상황 밖에 있을 수 있다.  
온 몸으로, 또는 시선으로 혹은 상념으로 사물을 만난다.  
사물들을 둘러싼 분위기는 한 덩어리의 큰 느낌으로 다가온다.

시선을 유난히 끄는 것에는 새로움이 있다. 또한 그것에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맛'이 있다. 무미 건조하지 않으며, 유별난 조화로움이 있다. 새로움은 외부 사물로부터 발산되는 듯 하지만 내가 그것을 평소와 다르게 바라보는데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결정(結晶)처럼 눈에 강하게 띄는 것에는 골기(骨氣)와 운치(韻致)가 서려있다. 정지한 사물에서나 움직이는 사물 모두에 기운은 어떤 흐름으로 배어있다.  
사물의 기운생동 또한 사물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감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특이한 구조와 배치를 지닌다. 사물을 이루는 그만의 구조와 사물 또는 사물의 부분들의 배치는 시공간상에서 다양하다.  
이 또한 나와 사물간의 상관적 관찰의 결과물이다.  
이렇듯 유난히 눈에 띄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  
새롭고 맛깔나며 기운이 살아있고 그만의 구조와 배치를 갖는 것, 그것은 독특한 독자 체험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므로 말들의 사전에 있는 사물의 이름들과는 다른 것이다.

당장의 뚜렷한 체험은 서서히 심적 여과 과정을 거친다. 그것은 사물로부터 왔으며 나만의 시선 안에 있다. 나는 그것을 강렬한 요체로 간직하려 한다.  
군더더기를 버리고 단순화하여 명료하게 만들려 한다.

눈을 감고 상념에 잠기면 그것들이 되살아난다.  
멀리....., 또는 가까이...

파도 - 소리 - 바람 - 스침 - 차가움 - 힘참 - 거칠음 - 하염없음 - 시원함 - 부서짐 - 휘말림  
- 하얗게 - 검게 - 첩첩이 - .....

이 전체 속에 흐르는 기운.  
형이나 색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

체험들은 나의 심성을 이룬다. 어쩌면 그것이 '나' 일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또한 내가 바라본 것이 이 세계의 모습이 아닌가? 더도 덜도 아닌, 그것들은 단적으로 표현되기를 기다린다. 그림이다. 그림으로써 내가 확인된다. 그리고 한 개인적 체험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다.

## 5. 전시 서문

### 마음을 파고든 심상(心象), 추상(抽象)으로 꺼내다

강요배의 <<상(象)을 찾아서>>전에

이태호 | 서울산수연구소장,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강요배의 제주 공간은 여유롭다. 새로 지은 작업실 귀덕화사(歸德畵舍)는 높고 널찍하다. 다듬지 않은 앞뜰에는 지천의 수선화와 홍매가 지고, 붉은 동백과 귀한 흰 동백꽃이 가만가만 떨어져 봄 숨을 쉰다. 운치로 가득 넘친다. 지난 4월 초가 그랬다.

올해 제주 4월은 한껏 들뜬 분위기였다. '춧불정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4·3항쟁 70주년 기념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들르니 4·3항쟁 70주년 특별전으로 한중일 화가들의 <<포스트 트라우마>> 전시가 한창이었다. 전시장 한 벽면을 가득 채운 강요배의 <불인(不仁)>(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은 기획전의 백미였다. 지난 30년간 강요배가 그려온 '제주 4·3항쟁 연작'의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 작업실을 짓고 그린 작품으로, 500호 캔버스 4장을 붙인 333cm×788cm 크기의 대작이다. 강요배의 역작으로 꼽을 만하다. 항쟁 후기 1949년 1월 17일 제주 북동쪽 조천 북촌에서 벌어진 대학살의 현장 풍경을 담은 그림이다. 마을 전체가 모두 한날 제사를 지낸다는 이곳에는 현재 애기무덤을 포함해 20여 기의 무덤이 남아 있고, 너븐송이 4·3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그림 제목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어진 일이 없다'라는 노자의 '천지불인(天地不仁)'에서 따왔다고 한다.(老子, 『道德經』)

화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1월의 팽나무 잔가지들이 세찬 바람을 타고, 마른 풀이 영킨 제주의 풍경이 전개된다. 언덕에는 학살이 지나간 후 스러져가는 불꽃들과 쥐색 연기가 인다. 타는 풀내음만이 붓 너울에 묻어나, 그때의 상흔을 처연하게 떠올린다. 하지만 여기엔 죽은 자도 죽은 자도, 인간은 없다. 언뜻 보면 학살의 현장이라기보다, 그냥 회갈색조 바탕에 눈보라 이는 겨울 풍경화이다. 종이를 접어 물감 묻혀 쓴 강요배 특유의 선묘들만이 화면 구석구석 이리저리 성글게 흘날리며 여운을 풍긴다. 아픈 역사의 대지를 이렇게 녹여냈다.

### 너울대는 종이 붓의 제주 진경화(眞景畵)

강요배는 일반적인 붓보다 빗자루, 말린 칩뿌리, 종이를 구기거나 서너 겹 접은 종이 붓을 만들어 쓴다. 고향 제주에 내려와 제주의 자연을 그리면서, 투박하고 성근 제주의 땅과 돌과 풀, 나무에 어울리는 도구를 나름 개발한 것이다. 1994년 <<제주의 자연>> 전(학고재 갤러리) 뒤부터 20년 이



상 종이 붓을 줄곧 써왔다.

캔버스 옆에는 몇 상자씩 종이 붓이 쌓여 있다. 종이 붓은 대롱도 없고 털도 없다. 종이 붓의 선과 터치하는 손이 가는 대로 잘 따라오지 않을 법하다. 어떨 때는 종이 붓과 손이 따로 놀거나, 의도하지 않은 자국이 종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흐물흐물 거리기 십상일 터인데, 강요배의 캔버스에는 종이 끝을 스친 물감이 빠르게 이미지를 형성한다. 때론 선들이 거칠게 서걱대거나, 춤추듯 속속 하며 신명이 넘쳐 있다. 화면에 가까이 다가가면 종이 붓 터치들이 어지러이 움직이며, 흥에 겨워 현란하다. 완전히 강요배식 종이 붓 화법을 창출한 셈이다. 2016~2018년에 그린 이번 전시의 30여 점은 종이 붓 씬씬이가 최고조에 이른 듯하다.

<항산(恒山)>은 한라산 정상의 설경을 500호에 담은 대작이다. 귀덕 작업실 마당에서 동쪽에 솟은 모습이다. 반은 자색 그늘의 설산이고, 반은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힐긋힐긋 드러나 있다. 풍경을 덮은 종이 붓 자국들은 이제 달인의 경지이다. 옆으로 흐르면서도 상하를 넘나들며 자연스레 리듬을 타 있다. 손길을 따른 우연의 색선들이 필연으로 그렇게 붓 길을 만들었다. 먹구름에서 쏟아지는 <우레비(雷雨)>, 큰 파고의 <보라 보라 보라>, 바닷가 개펄의 <개>, 해변 벼랑에 몰아치는 <치숫음>이나 <물부서짐(碎水)>, 구멍 바위로 붙어 닥친 <풍혈(風穴)>, 마을 신목인 <풍목(風木)>, 이번 겨울의 <폭풍설>, 제주 백사장의 푸른 바다 <수평선>, 초록바다에 뜬 달 <수월(水月)>, 앞마당 홍매의 <춘색(春色)> 등도 눈길을 끈다. 역시 종이 붓질의 득의작(得意作)들이다.

이들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공간을 사생하기보다 머리에 선명하게 남은 이미지로 재구성했으니 엄밀하게는 관념화인 셈이다. 더욱이 <우레비(雷雨)>는 주역의 괘상(卦象) '해(解)'로, <보라 보라 보라>는 '환(煥)'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들은 강요배가 평생 눈에 익히며 가슴 깊이 파고든 '심상(心象)'이자 '추상(抽象)'으로 꺼낸 제주풍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관념화가 아닌, 분명 제주를 기억한 진경화(眞景畵)라 할만하다.

질은 구름 사이 노을빛 쏟아지는 <풍광(風光)>, 저녁노을의 <파란 구름>, 겨울 동트는 <동동(冬東)>, 서리 내리는 계절 <상강(霜降)>의 노을 하늘, 가을의 높은 하늘 <천고(天高)> 등 이번 전시에 출품된 하늘 그림도 마찬가지로 진경이다. <풍광(風光)>에 표현된 질은 구름 틈새는 하늘을 나는 봉황새답다. 붓질은 날갯짓을 따라 스피디하고, 찰나의 노을빛 연노랑색은 찬연하다. <동동(冬東)>의 새벽하늘은 날개를 편 용오름 같다. 미끈한 표면의 <천고(天高)>에 흐르는 푸른 하늘의 흰 구름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발견되는 모양새이다. 필자와 강요배는 학교재 후원으로 1998년 8월 평양지역과 금강산을 답사한 적이 있었다. 강요배는 당시 확인한 고분벽화의 구름무늬가 그냥 상상한 도안이 아니라, 관찰한 자연의 이미지를 추상(抽象)해낸 결과물임을 재확인했다며 즐거워했다.

초록빛 <흑산도>는 사생화의 맛이 물씬해 좋다. 흑산도의 전형적인 암반의 벼랑 풍광이 아니라, 능선을 오르다 굽어본 숲 풍경을 담은 그림이다. 그림의 능선 너머가 『자산어보(玆山魚譜)』를 저

술한 정약전의 유배지였다. 화면 가득 채워 포착한 시선이 강요배 답기도 하고, 새로운 구도로 다가온다. 여행이 준 선물이다.

## 정겨운 일상과 귀덕 친구들

강요배는 요즈음 사생에 잘 나서지 않는다. 대신 작업실이나 주변에 찾아드는 자연의 벗들을 일상과 함께 즐겨 그린다. 삶 가까이에서 만나는, 소소하고 정겨운 그림들을 이번 전시에 여러 점 선보인다. 화실을 오가는 고양이, 왜가리, 까마귀 등과 뜰에 피고 지는 꽃과 나무 등의 친구들 상(象)은 또 다른 추상(抽象)이다. 눈에 띈 사물을 마음에 품었다가 추상화해낸 그림이다.

빨간 열매가 달린 먼나무에 수돗가에 쌓인 눈 그림 <수직·수평면 풍경>, 푸른 그림자 드리운 나뭇잎의 눈 밟기 <답설(踏雪)>, 겨울 하늘에 매달린 붉은 감 <동시(冬柿)>, 눈발을 차오르는 왜가리 <으악새>, 잠시 개울가에 동지를 튼 <한조(寒鳥)Ⅰ> <한조(寒鳥)Ⅱ>, 흰 눈발의 까마귀 떼 <설오(雪鳥)> 등은 겨울 향기가 가득하다. 올겨울 유난스레 눈이 많았던 설경 속 이미지를 놓치지 않은 강요배의 눈썰미와 따스한 감성을 엿보게 한다.

<답설(踏雪)>의 옥색 푸른 그림자는 순간을 포착한 전형적인 인상주의풍이다. 단숨에 묘사한 <설오(雪鳥)>의 까마귀들 동세는 흰 여백과 더불어 마치 수묵으로 그린 선화(禪畫)다우며, 강요배 추상론의 형상미에 근사하다. 특히 <한조(寒鳥)Ⅰ> <한조(寒鳥)Ⅱ>의 웅크린 왜가리는 자세 그대로 강요배의 자화상일 법하다.

절친이 될 뻔한 검정고양이 <오지 않는 길양이>와 노란 굴 사이 검정고양이의 <봄잠> 그림은 맑은 화면에 봄기운이 나뉘며 정겹다. 역시 선화(禪畫)의 맛을 풍긴다. <백일홍> <흰모란> <춘색(春色)>의 흥매 등에 구사된 자연의 색깔이나 대상 색 면의 질감에는 꽃내음이 묻어난다. <두부, 오이>는 비릿하며 단내 상큼하다. 이번 전시에서 제일 갖고 싶은 그림이다. 즐기는 술안주를 소재로 삼아서인지, 이 소품 두부와 오이 정물은 강파른 현실에 맑은 치유의 향기로 다가온다. 이처럼 강요배는 귀덕 생활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며 아름다운 상(象)을 찾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읽는다. 강요배의 성정性情이 잘 드러난 그림들이다.

## 민중미술에서 회화의 본질로 다가서

최근 캔버스에 쓴 강요배의 사유와 몸짓은 강요배 회화의 속성이 그렇듯이 프랑스에서 발전해 세계화된 인상주의(Impressionism)를 기반으로 삼는다. 강요배의 요즈음은 일본을 통해 인상주의 배운지 100여년 만이다. 고희동에 이어 김관호가 1916년 두 여인의 해질녘 목욕장면을 담은 대동강변 <석모(夕暮)>(동경미술학교 졸업작품이자 일본공모전 문부성미술전람회 특선작)를 기준으로 볼 때 그러하다. 이후 오지호와 김주경, 도상봉, 이대원 등으로 내려오며 우리 땅의 사계 경치과 풍물을 통해, 한국적 인상주의 화풍을 일구었다.

강요배는 빛과 색의 회화성뿐만 아니라 땅의 역사와 자연의 형질, 추상의 길까지 선배들보다 한 발 진보해 있다. 1980년대 민중작가로, 1990년대 제주4·3항쟁 연작을 완성해낸 화가로, 독서와 사색을 통해 강요배는 진정한 인상주의적 자기 기풍을 창출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회화의 본질에 다가섰다고 생각한다.

강요배의 종이 붓 그림은 유럽 인상주의 회화를 완성한 거장 클로드 모네(Oscar-Claude Monet)의 1910~1920년대 <수련> 연작을 떠오르게 한다. 화면에 가득 찬, 분방하게 튀는 붓질 선묘가 특히 그러하다. <불인(不仁)> <항산(恒山)> <우레비(雷雨)> <보라 보라 보라> 등은 대작의 위용이나 감명에서 파리 오랑주리미술관에서 실견했던 대형 <수련> 연작에 못지않다. 모네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 처음 눈을 떴을 때 받은 빛의 찬연함을 상상하며, 1890년대 이후 <건초더미(wheatstack)>나 <수련(nymphaeas)> 같은 연작들에 몰두했다. 이들은 결국 현대회화에서 추상(abstract) 표현의 원조로 재평가 받는다.

강요배의 화론은 내면에 들어온 심상(心象), 주역으로 해득하려는 괘상(卦象), 내 생각을 남과 공감하고 공유하며 공동체의 추상(抽象)을 추구한다. 이렇게 동양예술론에 근사하며, 생애 첫 빛을 기억해내려던 모네보다 차분하다. 캔버스 전면에 풀어낸 종이 붓의 흔적들도 서양 마네의 빠신 붓질보다 한층 유연하다. 한국인이 표출한 동양적 이미지이다. 단연코 강요배 회화를 한국화라 할 만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능란해진 강요배의 종이 붓은 이제 그를 떠나지 않았나 싶다. 도가의 무위(無爲)나 불교의 무상(無相)의 경지를 찾아선 듯하다. <우레비(雷雨)> 같은 작품의 빗물 표현은 민요나 산조의 허튼 가락처럼 산란하다. 자연스레 일렁이는 강요배의 종이 붓 숨결은 퍼지 논리(fuzzy logic)의 불규칙한 정형성과 유사하다. 추상표현주의 화풍의 올 오버 페인팅(All-over-painting)과도 닮은꼴이다.

### 절정기를 맞은 상(象), 추상(抽象)

이번 개인전 타이틀은 '상(象)을 찾아서'이다. 여기서 상은 '코끼리 상'이다. 코끼리를 보지 못하던 옛 시절의 상형문자는 유골을 보고 만든 그림 글씨이다. 뼈의 외물을 사람마다 다르게 그리는 데서 상상想像(想像)이라는 단어가 파생했다고 한다.『韓非子』, 解老編 '형상(形象)에서 '형'은 눈에 보이는 것(Form)을, 상은 마음에 남은 것(Image)을 말한다. 또 강요배가 최근 천착했던 『주역(周易)』의 64괘도 하늘의 여러 징조(徵兆)들을 상(象)으로 파악한 것이라 한다. 이처럼 상(象)은 뇌리에 남은 마음의 이미지이자 하늘이 펼치는 조짐(兆朕)의 흔적이니, 강요배 회화에 딱 맞는 아젠다(Agenda)이다. 이번 작가의 글 "사물을 보는 법"에 그 개념이 잘 드러나 있다.

강요배는 '나만의 시선 안에 있고, 심적 여과 과정을 거친' '눈을 감고 상념에 잠기면 되살아난' 형상에서 찾는 '강렬한 요체' 또는 '굳어지지 않는 단순한 명료함'을 '추상(抽象)'이라 한다. 현대미술 사조에 대입한다면 몬드리안(Piet Mondrian)이나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추상회화(abstract painting)도 그 범주에 들겠지만, 강요배는 '추상(抽象)'의 본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묵죽도나 사군자 그림을 추상화의 한 형식으로 본다. 맞다. 우리 옛 화가들은 거의

사생보다 기억으로 외워서 그렸다.

동양화론에서는 이를 '마음에서 쏟아내 그리다', 곧 '사의(寫意)'라고 했다. 송나라 문인 소동파(蘇東坡)는 '대나무를 그리려면 먼저 가슴에 대나무를 길러야 한다'는 '흉중성죽(胸中成竹)'의 사의론을 폈다.(蘇軾, 「筧簞谷偃竹記」) 중국 근대회화의 큰 스승인 제백석(齊白石)은 '삼라만상이 머리에 들어 있는 것 같다'라고 제자들이 술회한다. 단출한 구성과 형상의 사의 그림 문인화는 물론이려니와, 한국미술사의 거장 겸재 정선(謙齋 鄭敼)도 주로 마음에 담은 실경이나 금강산 유람을 추억하며 진경산수화를 완성했다.

최근 강요배는 절정기를 맞은 듯하다. <<이중섭미술상 수상 기념전>>(조선일보미술관, 2015) 제주에서 가진 회고전 <<시간 속을 부는 바람>>(제주도립미술관, 2016)에 이어 이번 학교재 갤러리의 <<상(象)을 찾아서>> 전까지, 계속해 새로이大作들을 선보여 왔다. 이들은 모두 강요배의 수행과정에서 인생과 사유와 회화가 통합의 길에 들어섰음을 일러준다. '몸 안의 천(天)과 마음', 그리고 사물의 핵심을 뽑은 '추상(抽象)'과 정수(精髓)의 '향(香)'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아래는 작년 '해석된 풍경'이라는 기획전 도록에 실린 강요배의 인터뷰이다.

“...자연물은 몸 밖에 있고, 천은 몸 안에 있습니다. 장자도 하늘은 마음속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연을 통과해서 하늘을 찾아가야 합니다. 천심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천의 곡조를 듣는다는 거예요....저는 회화를 통해...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마음의 무늬를 그리는 것을 꿈꿉니다.” “...50대 이후15년 동안 저는 내면에 있는 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의 개념을 생각하다 보면, 그림에서 자연물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문이랄까....”

“지금까지 추상이라는 말은 오인되어 왔습니다. 라틴어를 봤더니 abstract에는 떨어져서 끌어낸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비롯한 모든 존재는 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게 추상화하는 겁니다....향, 에센스. 이건 효율성이예요. 향은 정수에 닿아 있습니다....이것은 많은 것을 커버하고, 모든 갈등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마술적이예요.” (김지연, “회화, 천천을 만나는 과정” 강요배 인터뷰, 『해석된 풍경』, 성곡미술관, 2017.)

### 강요배가 쏟아낸 향내 그림들

이번 전시작품들은 강요배가 마음으로 파고드는 심상(心象)에서 가슴으로 보듬어 단순해진 추상(抽象)에 몰입해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는 사심 없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무관심성', 그리고 주관적 미감정이 객관화되는 주관적 필연과 보편, 곧 모든 이들에게 '공통감각'이 되는 취미판단 같은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미학 개념을 소화한 듯하다. 이번 만남에서 강요배는 주역보다 '무관심성'이나 '공통감각'의 칸트 얘기를 유난히 입에 올렸다. 그러면서 “그림에 대한 내 생각이 남들도 공감하고, 모든 이가 그렇게 부담 없이 그림 그린다면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반문한다.

지금 강요배의 삶 풍경이 이번 그림들처럼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더할 것도, 덜어낼 것도 별로 없어 보였다. 그 강요배가 앞으로 얼마만큼 쏟아낼 향내 나는 그림들을, 부러워하며 한밤중 별무리 가득한 귀덕화사(歸德畵舍)를 나왔다.

## 6. 약력

- 1952 제주출생
- 197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제주에서 거주 및 작업

### 개인전

- 2018 메멘토, 동백, 학고재, 서울  
**상(象)을 찾아서, 학고재, 서울**
- 2016 제27회 이중섭미술상 수상작가 강요배 초대전, 시간의 창, 이중섭미술관, 제주  
한국현대미술작가, 강요배: 시간 속을 부는 바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2015 제27회 이중섭미술상 수상기념전, 소리,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 2014 강요배 그림 <소나기> 원화전, "소년, 소녀를 만나다", 제라진 그림책갤러리, 제주  
강요배 소묘: 1985-2014, 학고재, 서울
- 2013 강요배, 학고재, 서울
- 2011 풍화,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제주
- 2009 강요배의 습작시절, 제주교육박물관, 제주
- 2008 스킴, 학고재, 서울  
제주4·3 평화기념관 개관기념 특별전: 강요배의 4·3역사화-동백꽃 지다, 제주4·3 평화기념관, 제주
- 2007 섬 빛깔, 제주문예회관, 제주
- 2006 땅에 스민 시간, 학고재, 서울  
강요배, 아트스페이스 씨, 제주
- 2003 강요배, 학고재, 서울
- 1999 금강산, 아트스페이스 서울, 서울
- 1998 4·3 50주년 기념-동백꽃 지다, 학고재, 서울; 세종갤러리, 제주; 송원갤러리, 광주; 가톨릭센터, 부산; 월성문화관, 대구
- 1995 섬 땅의 자연, 조현화랑, 부산
- 1994 제주의 자연, 학고재, 서울; 세종갤러리, 제주
- 1992 제주 민중항쟁사, 학고재, 서울; 세종갤러리, 제주; 단공갤러리, 대구
- 1976 각(角), 대호다방, 제주

### 단체전

- 2018 4·3 70주년 특별전, 포스트 트라우마,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4·3 70주년 동아시아 평화인권전, 침묵에서 외침으로,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 2017 코리아 투모로우 2017 해석된 풍경, 성곡미술관, 서울  
 제주정신,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  
 제주비엔날레, 한라살롱,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허우당씩, 문화공간제주아트 갤러리, 제주
- 4·3 미술 아카이브: 기억 투쟁 30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2015 아시아 사회현실주의 1. 무망도, 학교재 상하이, 상하이  
 제22회 4·3 미술제, 얼음의 투명한 눈물,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광복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 예술과 역사의 동행, 거장들의 세기적 만남,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15 평창비엔날레, 생명의 약동, 알펜시아, 평창  
 지금, 여기,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 제6회 제주·일본 신화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제주문예회관, 제주
- 2014 광주비엔날레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슬-1980 그 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제21회 4·3 미술제, 오끼나와·타이완·제주 사이: 제주의 바다는 갑오년이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바람을 흔들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현대미술의 흐름Ⅶ-리얼리즘,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공재 윤두서,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생명의 숨, 신화의 방, 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  
 동백꽃 지다, 소노마 카운티뮤지엄, 산타 로사, 미국  
 새봄의 향해, KBS제주방송총국, 제주
- 인도네시아-한국 작가 기획전, 낮은 흐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2013 탐라미술인협회 20주년, 섬,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두 섬의 확정,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자카르타; 토나라카 갤러리, 발리, 인도네시아  
 제20회 4·3 미술제, 공(龕), 여러개의 시선들,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충북민족미술 아트페스티벌, 현실미술과 미술의 시대정신, 우민아트센터, 청주  
 풍경-그림을 그린다는 것,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 2012 제4회 제주·일본 신화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제19회 4·3 미술제, 식구(食口),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DMZ 평화미술+책프로젝트, 겨울 겨울 겨울, 봄, 경기도미술관, 안산  
 모성,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 2011 코리아 랩스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대지의 꿈, 인사아트센터, 서울  
 제7회 제주신화전, 깊고 깊은 시선, 제주문화포럼, 제주  
 제3회 제주·일본 신화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사야마이케 박물관, 오사카  
 구름비가 운다, 아트스페이스 씨, 제주  
 공존 그리고 상생,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 2010 현실과 발언 30년 사회적 현실과 미술적 현실, 인사아트센터, 서울  
 제2회 제주·일본 신화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제주문예회관, 제주  
 화산섬 제주의 삶, 풍경, 제주문예회관, 제주; 우에노모리미술관, 도쿄  
 노란 선을 넘어서, 경향갤러리, 서울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 63 스카이라트 미술관, 서울  
 한국 드로잉 30년: 1970-2000, 소마미술관, 서울
- 2009 제주 세계자연유산 특별전-자연의 신화,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09 평화 미술제-대지의 꽃을 바다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제주미술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아시아 그리고 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 2008 오늘의 한국미술\_미술의 표정,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제10차 람사르총회 기념 특별전,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민중의 고통: 한국 미술의 리얼리즘 1945-2005, 반다이저마 미술관, 니가타,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미야코노조 시립미술관, 미야코노조, 일본; 오오타니 기념미술관, 니시노미야, 일본; 후츄 시립미술관, 후츄, 일본
- 2007 코리아 통일 미술전, 부산민주공원, 부산  
 남해안 비경 베스트100선,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거제문화예술회관, 거제  
 제14회 4 · 3 미술제, 다시 그 곳에 서서, 제주문예회관, 제주  
 신화를 삼킨 섬-제주 풍광,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2005 제주-발리, 토니라카 갤러리,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제주, 제주문예회관, 제주  
 길에서 다시 만나다, 부산민주공원, 부산; 광주5·18기념 문화관, 광주; 태백 문화관, 태백;청주 예술의전당, 청주;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서울  
 제12회 4 · 3 미술제, 동행, 제주문예회관, 제주
- 2004 제13회 제주미술제, 열린 시공을 향한 제주형, 탐라색,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 기당미술관, 제주  
 바람의 신화 2004, 제주문예회관, 제주  
 정물예찬, 일민미술관, 서울  
 평화선언 2004 세계 100인의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길에 관한 명상, 제주문예회관, 제주  
 제6회 제주 · 충북 문화예술교류행사, 생명, 평화, 기당미술관, 제주  
 제11회 4 · 3 미술제,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을 만나다, 제주문예회관, 제주
- 2003 제10회 4 · 3 미술제, 진실의 햇불 밝혀 평화의 바다로, 제주문예회관, 제주  
 진경-그 새로운 제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깊은-그림, 대안공간 풀 서울  
 탐라미술인협회 10주년, 신산갤러리, 제주  
 1901년 제주항쟁기념 역사미술전,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 2002 제9회 4 · 3 미술제, 테러, 제주문예회관, 제주  
 풍토-바람 땅, 구름 뒀, 충북문예회관, 청주  
 민족미술 20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지금 그 사람, 세종갤러리, 제주  
 제비울미술관 개관전, 제비울미술관, 과천
- 2001 제8회 4 · 3 미술제, 한라와 무등-역사의 맥, 제주문예회관, 제주  
 제주의 습지전-목 긴 청개구리, 세종갤러리, 제주; 갤러리 제주아트, 제주  
 생명으로의 초대, 학교재, 서울  
 4 · 3과 노근리, 청주예술의전당 청주문화관, 청주  
 기초/전망, 서울미술관, 서울  
 제13회 조국의 산하, 바람바람바람, 광화문 갤러리, 서울  
 아름다운 생명, 예술마당 슴, 대구
- 2000 제3회 광주비엔날레, 인간(人+間),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해양미술제 2000, 세종문화회관, 서울  
 제7회 4 · 3 미술제, 역사가 서린 땅, 제주문예회관, 제주  
 2000 충북 · 제주문화예술만나기-물길 고갯길 사람의 길, 제주문예회관, 제주  
 제주의 풍속화, 세종갤러리, 제주
- 1999 제6회 4 · 3 미술제, 보이지 않는 손, 보는 눈-4 · 3과 미국, 제주문예회관, 제주  
 제주미술 맑은 바람, 세종갤러리, 제주
- 1998 우리 들꽃, 사비나갤러리, 서울  
 제5회 4 · 3 미술제, 상극의 빗장을 열고 상생의 아름다움으로, 제주문예회관, 제주  
 잘못된 만남, 사비나갤러리, 서울
- 1997 제4회 4 · 3 미술제, 자연 · 사람 · 역사, 제주문예회관, 제주

- 한국의 미를 찾아서, 사비나갤러리, 서울  
기당미술관10주년, 기당미술관, 제주
- 1996 전통과 현실의 작가 17인, 학교재, 서울  
제3회 4 · 3 미술제, 4 · 3 그 되살림과 깨어남의 아름다움, 세종갤러리, 제주  
사라진 제국의 숨결을 찾아서: 네번째 실크로드 미술기행, 동아갤러리, 서울  
동시대 작가,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 1995 제8회 조국의 산하, 강-내일로 흐르는 삶의 도도함처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제1회 광주비엔날레, 광주5월 정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광주 통일미술제, 망월동 묘역, 광주  
해방50년 역사미술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제2회 4 · 3 미술제, 낮이여 오라, 세종갤러리, 제주  
9인 작가초대전, 갤러리 제주아트, 제주
- 1994 1945-1995 해방 50년 역사의 지층, 현실의 꽃, 세종갤러리; 갤러리 제주아트, 제주  
민중미술15년: 1980-199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제주미술 맑은 바람, 세종갤러리, 제주
- 1993 제1회 4 · 3 미술제, 닫힌 가슴을 열며, 제주문예회관, 제주; 세종갤러리, 제주  
코리아 통일미술, 센트럴미술관 아넥스, 도쿄  
제3회 제주미술제, 제주문예회관, 제주
- 1992 12월전, 그 10년 후, 덕원미술관, 서울  
제2회 제주미술제, 제주문예회관, 제주  
개관3주년 특별전, 오늘의 삶, 오늘의 미술, 금호갤러리, 서울
- 1991 90년대 우리미술의 단면, 가람화랑, 서울; 갤러리 상문당, 서울; 학교재, 서울; 현 갤러리, 서울  
우리 시대의 표정-인간과 자연, 그림마당 민, 서울  
18인전, 서울미술관, 서울
- 1990 젊은 시각-내일예의 제안,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교육현장, 그림마당 민, 서울  
현실과 발언 10년, 관훈미술관, 서울; 그림마당 민, 서울  
그림마당 민 개관 4주년 기념전: 우리시대의 표정-인간과 자연, 그림마당 민, 서울  
새벽의 숨결-동향과 전망, 서울미술관, 서울
- 1989 민족미술자리매김, 그림마당 민, 서울  
조국의 산하, 그림마당 민, 서울  
더불어 사는 삶, 예술마당 금강, 서울  
삶의 터전을 되살리는 서화 · 도예, 그림마당 민, 서울  
현대미술-새로운 시각, 세종갤러리, 제주
- 1988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 그림마당 민, 서울
- 1987 민족미술협회 반고문, 그림마당 민, 서울; 광주 카톨릭미술관, 광주
- 1986 JAALA, 도쿄도현대미술관, 도쿄  
우리시대 30대 기수, 그림마당 민, 서울
- 1985 을축년 미술대동잔치, 아람문화회관, 서울
- 1984 삶의 미술, 아람문화회관, 서울; 관훈미술관, 서울; 제3미술관, 서울  
현실과 발언, 6. 25, 아람문화회관, 서울  
해방40년 역사, 광주아카데미미술관, 광주; 전남대교정, 광주; 대구 현대화랑, 대구; 부산 카톨릭센터, 부산; 마산 진화랑, 마산; 연대 중앙도서관 앞, 서울, 고대 학생회관 앞, 서울
- 1983 제1회 시대 정신, 제3미술관, 서울
- 1982 젊은 의식, 덕수미술관, 서울  
현실과 발언, 행복의 모습, 덕수미술관, 서울
- 1981 현실과 발언, 도시와 시각, 롯데화랑, 서울

현대미술 워크숍 기획전,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1981-90 현실과 발언  
1980 12월, 덕수미술관, 서울  
관점미술동인전, 청년작가회관, 서울  
1977-80 제1-9회 관점, 대호화랑, 제주

#### 수 상

2015 제27회 이중섭미술상, 조선일보문화사업단, 서울  
1998 민족 예술상,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서울

#### 소 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Hakgojae Gallery is pleased to announce Kang Yo-bae's solo exhibition. This is a large-scale exhibition,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first section, *Just, Image* is on view from May 25<sup>th</sup> to June 17<sup>th</sup>, 2018, in both Space 1 and Space 2 of Hakgojae Gallery. This exhibition is Kang's first gallery exhibition following solo exhibitions in museums such as Jeju Museum of Art (Jeju, Korea) and Lee Jung-seob Gallery (Jeju, Korea), after receiving *The Lee Jung-seob Award* in 2015. In this exhibition, Kang presents works that capture the main subject of his oeuvres, the scenery of Jeju Island, along with the friends from nature that visit his studio's surroundings, through his unique sensibility. The works depict a stray cat, herons, birds of passage, etc. that come and go Kang's studio as well as trees and flowers that bloom and fall in his front yard. The work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are recent works from the past two years. This exhibition is an opportunity to meet the paintings that overflow with the artist's warm affection and amiability towards austere and overlooked things that encounter closely with life.

The character representing image (象) in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signifies 'elephant.' 'Elephant 象' signifies 'image' in art related terms such as figure (形象), impression (印象), abstraction (抽象), symbol (表象), etc. This character derives from attempting to describe an elephant, which was an animal that were rarely seen in ancient times, through drawings instead of words. It is used to indicate the painted form imitating the shape of an object based on etymology, or the abstract image itself, emerging inside one's mind. To complete his works, Kang sequentially follows stages for heading towards impression, imagery, and abstraction. The scenes that remain in our impressions and penetrate through the mind's filter are moments that touch the essence of our lives; therefore, this exhibition manifests Kang's path towards 'searching for the essence of life.'

The second section of this exhibition, *Memento, Camellia*, is on view after the first section, from June 22<sup>nd</sup> to July 15<sup>th</sup>, 2018. This exhibition encompasses Kang's renowned historical paintings, which started from *The Camellia Has Fallen*, in one place, for the first time. Kang's works from 1989 to 2017 are presented under two categories; 'The Camellia Has Fallen' and 'After Camellia.' We hope that in-depth comprehension and research of Kang Yo-bae's works arise through the two exhibitions.